

“진리의 어린이 모든이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2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지난 8일부터 1박2일간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아래 대불전에서 개최됐다.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주관한 이번 연수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연합회 총재 정

ROM 타이틀설명회를 가져 어린이 지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첫날 입제식에서 정관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회에 나오던 어린이가 자라서 이제는 어린이지도자가 된 분이 많은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어린이법회를 인연으로 만난 불법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원했다.

어아할 자질, 에터넷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되는 18가지 지침과 게임지도의 테크닉 등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내용들이 소개됐다.

“PC통신·인터넷을 통한 첨단 어린이교육” 강의에서는 지난 6월1일 부터 PC통신 전라남도호화 안에 개설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소개됐다.

이 동호회에 직접 들어가기 위한 명령어는 ‘GO BOSAL’. 이 방에는 어린이법회 개설문의, 대화방, 전국

동화사 어린이지도자연수회 현장

인터넷등 첨단포교 ‘관심고조’

관스님을 비롯 회장 칠오스님(사천구룡사 주지), 혜홍스님, 각 어린이단체 지도법사, 지도교사등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하여 고조되는 어린이포교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번 연수회는 동 연합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었는데 찬불가들동, 놀이게임, 창의적 학습도구 만들기, 민속음악강의, 여름불교학교 고재활용법과 PC통신·인터넷설명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멀티미디어 시대를 반영하듯 PC통신·인터넷설명회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어린이포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불교전산연구원 칠엽굴(원장 지월스님)에서는 최근 완성한 전자아침경과 애니메이션 동화인 ‘부처님 전신이야기’, ‘진흙 관세음보살’, ‘반구경’ 등을 수록한 CD-

스님·교사등 8백여명 동참

어린이불자 육성책 다각 논의

찬불가들동·게임등 ‘일일이 기록’

이에 앞서 성타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어린이지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제식후 참석자들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여름내린 산사는 차츰 찬불가들동, 놀이게임과 더불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갔다. 어린이지도자들은 낮선 울동에도 잘 따라하는 순발력을 발휘했고 일일이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MC방법 및 레크리에이션 화법’ 강의시간에는 사회자가 갖추

지회소식, 동련·연꽃 TEXT 파일들이 수록되어 있음도 아울러 소개됐다.

사벽 1시가 훨씬 지나서야 취침에 들어간 어린이지도자들은 통일대불에서의 새벽예불을 위해 새벽 4시에 기상해야만 했다. 좁은 강의실과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뻘뻘한 일정이었지만 불평하는 선생님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기획실장 박용하씨는 “미래의 불교는 어린이에게 달려있고 어린이는 어린이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누구나 다 같이 인식하고 있다”며 연수회에 임하는 어린이지도자들의 태도를 대변했다.

특히날은 여름불교학교 교재활용법, 창의적 학습도구 만들기, 민속음악, 영상으로 보는 여름불교학교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윤호 기자

◆내실있는 어린이 포교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적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지도자들.



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 10년



—스님께서 몸담고 있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의 창립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만지 어린이이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세우신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십수년전 저의 절에 나오는 신도 한 분의 방문안을 갔는데 저를 본 그 신도의 아들이 마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후로 경남 함양에 있는 법인사에 들어가서 어린이법회를 창립하고 86년에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창립하는데 뜻을 같이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회는 6월부터 컴퓨터를 통한 첨단포교를 펼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어린이법회를 시작할 때 아이의 부모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싹불자 키우려면 불교문화공간 넓혀야”

다. 절에 나가는 아이들을 만류할 정도였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포교해 함께 절에 나오게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에 친숙해 있는 사람은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입니다. 정보화시대의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폭넓게 심어줄 생각입니다.

—어린이지도자의 참된 자세는 어떤것일까요.

▲어린이 포교는 대표적인 방식이 범법인데 이제는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어린이 하나하나에 불법의 핵심을 전달하는데 모든 애정과 원력을 바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포교에대한 스님의 계획...

▲어린이들이 실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늘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차량으로도 대규모 어린이 문화공간을 진주 시내에 만들었으면 하는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

만화 법구경

*** 지옥의 장 ***
기껏만 하는자 지옥에 떨어진다

이향원

끼어- 끼어네
아유 숯받새 마신생님!
남부터 댜어 아유?
끼어- 댜어 댜어 있어아지
한동안 반짝하는 듯 싶더니 요즘은 뿔... 재질!
김선생님 말씀대로 실천 하시니까 그렇죠

한동안 잘 되실때는 김선생님 말씀대로 잘 따라 하신 덕 아니겠어요
김선생님은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사업도 잘 되시고 기정도 화복하고
아! 그대 김선생만 겠잖아 잘났어
너까지 날 문제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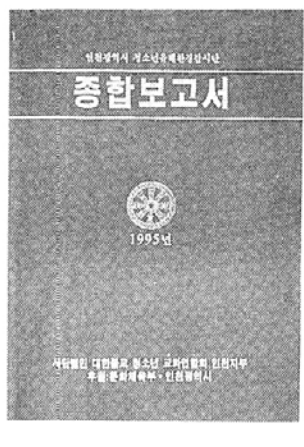
재질! 알아 안되려니까 별개 다
그대, 그 가정이 얼마나 화복한지 어디보라
비리링!
아... 여보세요

어머! 손삼씨가 언제 가정부를 두셨나?
나 "설"이라 해요
그저께 손삼씨가 지어 준 약 덕분에 몸살이 깨끗이 나갔다고 오늘 꼭 돌려 달라고...
매일 보다가 하루만 못보면 몸살이 도질것 같아서
아... 호호호

어머! 아직도 안들어 갔어요? 좀 전에 헤어졌지만 또 보고 싶어서...
들어오는 대로 전화 부탁한다고 메모 좀 해 두세요
5년 전화 해주면 심만원 준다고 했죠. 오늘로 3번째니까 2번 날았어요
반응은 어떤 것 같아?
전화통으로 뭐가 보이나요

사무실에서 만나 봤으면 알겠어아네요
계속 나가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
아마 동지박산이 났을거야
아니! 김선생
왜 쓸데없는 장난으로 남을 괴롭히려고 드는거요
아! 김형

느닷없이 장난은 무슨 뭐...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요 김형
이 전화번호 여기가 맞죠? 누가 장난 했는지 전화국에 조회 해 분기요
그런 장난 한 적 없어요 절대 없대구요
기껏만 하는자 지옥에 떨어진다 기껏만을 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은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것을 한다



“스포츠신문·만화등 유해 심각”

인천청교련 ‘청소년 환경보고서’ 발간

스포츠신문 만화 잡지 등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환경인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부투나포교원)이 최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펴낸 <청소년유해환경종합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95년 4월부터 1년간의 활동사례를 바탕으로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환경문제와 관련, 인쇄매체부분이 7백12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

다. 이 가운데 스포츠신문이 3백23회로 가장 많았고 만화부문(판타스틱, 시티메신저, 슬램덩크 등)이 2백40회, 잡지부문(비키니걸, 휘가로, 영점프 등)이 1백40회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인 것으로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또 비디오·노래방 등 대중문화(1백19건)을 비롯 영상매체부문(45건)이 건전한 청소년들의 문화정착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고서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 청소년유해환경실태, 모니터활동, 상·하반기 세미나 등 각 매체별 활동사항과 시정조치활동, 자율정화유도캠페인 등이 수록돼 있다.

이처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물질을 문화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바른 청소년육성을 위해 상설고발창구와 매체별 모니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인천광역시 학교주변업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등 총 8백44개 업소의 유해환경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 업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팝플렛, 지역정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개선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근)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층 높여, 정당한 사회적 결실도 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나 개인별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울만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실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심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생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걸맞는 종합불교인문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